

(9)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18:1-19:38)

구조

- A. 18:1-15 이삭의 출생에 대한 방문자들의 선포
 B. 18:16-19:26 소돔의 멸망과 롯의 구조
 A' 19:30-38 롯의 두 아들 모압과 벤암미의 출생

주요내용

1. 롯과 롯의 가족 / 모범적인 축복의 보유자인 아브라함의 대조
 - 아브라함은 관대한 친족(13장), 인상적인 전사(14장), 관대한 주인(18장), 주님의 중재에 호소하여 롯을 구출(18장).
 - 손님을 환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
 - 롯은 천사도, 자신도 보호하지 못하고 두 나라의 시조가 되지만 알지 못함.
 - 그러나, 롯에 대한 이해는 롯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성경의 기록(벧후 2:5-8)과 균형을 이뤄야 함.
2. 롯의 구원과 소돔의 멸망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12:3).
3.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짐으로 하나님의 복을 놓쳤지만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에 땅을 허락하심(신 2:9, 19)
4. 선택된 후손과 버려진 아이가 대립-롯과 술로 인한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롯의 계보가 자격을 상실함.
 - 평행을 통해 노아와 같이 롯은 생존자로서 술 취한 일로 인해 가족의 수치를 이끈 당사자임을 암시.
5. 버려진 후손에 대한 기사에 결론을 내리면서 족보 기록을 남기는 창세기의 특징대로 모압과 암몬 기사로 마침.

1) 아브라함의 방문자들(18:1-15)

- 1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 2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 3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 4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 5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 6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 7 아브라함이 또 가축 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 8 아브라함이 영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 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서매 그들이 먹으니라
- 9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는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 10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는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 11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 12 사라는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 13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는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 14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 15 사라는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 18:1-2/ '나타나시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마지막 기사.
 '사람 셋': 주님과 천사 둘. 성경에서 천상의 손님이 셋으로 나오는 유일한 경우. 두 가지 선포의 규모를 강조.
 '마므레': 아브라함과 롯을 연상하게 하는 장소(헤어짐과 구출).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아브라함의 관대한 마음을 드러냄.
- 18:3-5/ '내 주여... 지나가지 마소서': 단수. 아브라함이 세 사람 중 눈에 띄는 한 사람을 공손히 대함.
 '가져오게 하사, 씻으시고, 쉬소서': 복수로 변화. 환대의 관습의 시작.
- 18:6-8/ '달려가서, 영긴 젖, 우유, 송아지':
 *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고 그들의 음식 먹는 것을 지켜보는 아브라함의 주인으로써의 비범함.
- 18:9-10a/ '내년 이맘 때, 반드시, (보라)': 약속이 확실하다는 강조.
- 18:10b-15/ '그 뒤 장막문, 속으로 웃고': 방문자는 사 را를 보지 않고도 그의 마음을 파악했음 - 예언에 신뢰를 부여.
 '들었더라, 웃고':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한 언어유희. 형제 간의 갈등과 음모를 암시.
 '늙었고, 끊어졌는지라, 노쇠하여': 임신의 불가능함을 강조.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의 의심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약속을 반복.
 '내가 웃지 아니하였다, 내가 웃었느니라': 확정적 답변으로 문제를 종결 시킴.

2)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 (1) 아브라함의 간청 (18:16-33)

16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17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18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9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와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20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21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22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23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24 그 성 중에 의인 오십 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 곳을 멸하시고 그 오십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25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26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오십 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 하리라
 27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28 오십 의인 중에 오 명이 부족하다면 그 오 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사십오 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29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사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사십 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30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삼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삼십 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31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이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이십 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32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십 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33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 18:16/ '함께 나가니라': 출발하는 손님들과 동행함으로 완벽한 주인의 모습을 마무리.
- 18:17-18/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 *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아브라함을 포함시키심.
 - * 이후에 하나님은 천사의 중재 없이 모세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말씀하심-선지자 모세의 원형.
 - * 주님과 거둬하여 협상하는 유일한 사례.
 - ‘크고 강대한 나라가 되고…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 * 하나님과 절친한 친구와 같은 아브라함의 지위는 12:1-3의 부르심에 근거.
- 18:19/ '그를 택하였나니': 아브라함에 대한 계시의 두 번째 이유
 - 의, 공의를 특징으로 하는 민족이 일어날 것이고 그에 따라 천하에 약속한 복을 성취한다는 것.
 - * 선택, 복의 약속, 의로움의 관념이 하나로 모임.
 - * 궁극적으로 이 계획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성취할 일이며, 약속의 실현은 은혜로 이뤄짐.
 - ‘명령했다, 지키다, 의로움, 공의, 말했다’: 언약의 신명기적 언어.
 - ‘여호와와 도를 지켜’: * 하나님의 선택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안에 ‘여호와와 길’을 준수하도록 가르칠 것을 포함.
 - * 신명기 언어에서 ‘길’은 언약 규정의 준수로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보여주는 것.
 - ‘의(올바름)와 공도(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 * 지혜서(시편, 잠언)에서 주님의 공도를 택한 개인은 구원의 복을 누림.
 - * 도덕적으로 악한 자들은 멸망에 이르는 길을 다님(사 35:8, 시 37:34; 잠 11:5).
 - * 선지자들은 회개하고 자신의 ‘길’을 돌이키는 자들에게 소망을 보여 줌(사 55:7)
 - * 소돔 사건은 아브라함의 가족과 소돔 사람들이 걸었던 두 가지 서로 다른 길을 예시.
 - * 의와 공도는 특별히 사회적 정의에 맞는 것을 행하는 문제이며 사회적 공평을 보장하는 것이 통치자의 의무.
 - 주님은 도덕적 진실성과 충실함(헤세드)로 백성들을 다스림.
 - * 18:19, 20: 아브라함의 올바른(츠다카) 행실과 소돔의 부르짖음(츠아카)를 대조.
- 18:20-21/ '이르시되': 17절의 질문(숨기겠느냐)에 대한 답으로 아브라함에게 곧 일어날 일을 귀뜸하심.
 - ‘알려 하노라’: * 주님이 조사하시는 것은 소돔-고모라의 범죄 정도가 심각한지 알기 위함.
 - * 아브라함은 주님의 소돔 조사를 사실상 ‘토벌 작전’으로 받아들임
 - 아브라함이 소돔의 부르짖음을 들었음을 의미.
 - ‘부르짖음’: * 불의를 겪은 희생자의 비참함, 괴로운 사정에 대한 비통함, 압제자로부터의 구원 요청.
 - *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에서 행해진 사회적 불의를 악명 높은 소돔-고모라의 도시와 동일시.
 - ‘크고… 무거우니’:
 - * 노아 시대의 범죄의 무게(6:5)와 아브라함고 롯이 애굽에서 얻은 재물을 떠올리게 함(13:1).
 - 홍수 멸망 모티브와 롯이 평원의 매력적이고 현혹적인 도시를 선택한 실수를 떠올리게 함.
 - ‘내려가서… 보고’:
 - * 바벨탑 내러티브를 떠올리게 함. 소돔-고모라는 악명 높은 바벨의 성격을 띠.
 - * 정벌이 인간의 사악함에 대한 적절한 반응인 것은 주님이 온 세상의 심판자이기 때문(25절).
- 18:22/ '그 사람들': 세 방문자의 정체가 명확하게 밝혀짐. 두 사람은 신적 구성원, 곧 주님의 수행자.
 -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을 법정에서 있는 것처럼 묘사-사법적 청원의 예고.
- 18:23-25/ '아브라함이…이르되':
 - * 아브라함의 청원은 악한 이방인을 위한 중재라는 점에서 독특 - 모세, 아모스, 요나와 비교.
 - *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두 기둥에 의지하여 주장을 펼침.
 - * 그러나 아브라함의 요구와는 달리 하나님은 결백한 자를 보존하시고 죄인을 소멸하심.
 - 또한 소알을 보존하여 달라는 롯의 요구를 들으심으로 결백한 롯의 편에서 죄인을 보존하심.
 - * 아브라함과 옴은 주님의 공의만을 반영했으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침묵.
 - 자신들이 도덕 세계를 지배할 정당한 입장을 가진 것이 아님을 깨달음.
 - * 소돔의 멸망은 주님에게는 판단의 자유가 있고, 주님의 판단은 불가해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
 - ‘멸하려, 용서하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질문에서 두 가지 극단적인 선택을 강화
 - 멸하다(쓸어버리다) / 용서하다(보존하다)
 - ‘의인 오십 명’: 주님의 은혜와 순종하지 않는 도시에 대한 아브라함의 동정
 - 그러나 의인 10명조차 찾을 수 없었던 것이 도시들의 상황.
 -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이 부당하니이다’:
 - * 주님이 공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의인과 악인을 차별해야 함을 주장.
- 18:26-32/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 * 자신이 위태롭게도 주제 넘은 짓을 한 것을 인정하지만 끝까지 요구 - '옴'과의 비교.
- 18:33/ '말씀을 마치시고…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브라함의 첫 호소 이후 여섯 차례 응답 이후 아브라함을 떠나심.